

#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Korean Architecture Award Ceremony 2017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이 11월 7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조중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신정철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 임인옥 계획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 후원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건축계 인사와 수상자 및 가족·친지 등 500여 명이 시상식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올해 준공작품에는 건축계의 이슈가 된 지상 123층·건물높이 555미터에 달하는 초고층건축물과 280미터에 달하는 볼륨감 있는 대형매스를 가진 건물, 85제곱미터라는 최소한의 대지에 건축사의 지혜로 빚어낸 마법 같은 작은 건물까지 다양성과 창의성, 용도의 복합성,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건축물들이 많았다.

계획건축물부문에는 ‘테크놀로지와 소통하는 건축’을 주제로 건축이 하드웨어적 변화 뿐 아니라 그 이면의 소프트웨어적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이것이 건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번뜩이는 통찰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작품이 제출돼 수상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17신진건축사대상도 함께 열려 대한민국 건축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수상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전시된 수상작들의 패널과 모형을 진지한 눈길로 살피고 사진을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UIA(세계건축사연맹) 제4지역 이사,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축의 세계화에 기여한 ‘이근창 건축사(주.엄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건축문화대상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주어지는 공로상에는 前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김봉희 건축사(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수상했다.

시상식과 함께 올해 수상한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됐다. 11월 7일 시상식 후 전시회 개막을 기념하는 커팅식이 있었다. 수상작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건축사회관 1층 로비 및 대강당에서 전시됐다.



1. 11월 7일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전경
2.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자 이근창 건축사
3. 준공건축물부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와 맹성규 국토부 2차관
4.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와 조충기 사협 회장

